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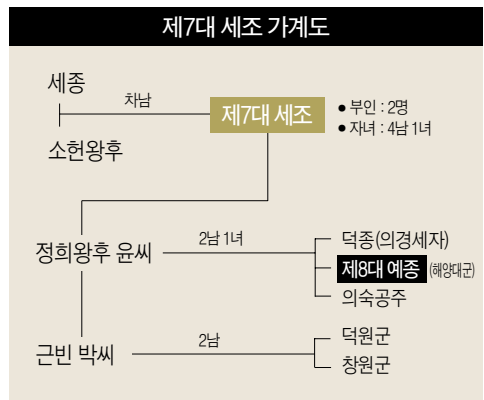
“나 죽으면 속히 썩어야 하니 석실·석곽 사용 말라”



조선왕릉에서 불교를 입다 ⑬

7대 세조 광릉(1)

세조 1417~1468년(52세)
재위 13년 3개월 1455.6(39세)~1468.9(52세)



능침과 난간석이 기울어져 있다. 평탄작업을 하지 못하게 한 땅자의 뜻이다.

광릉은...

조선 7대 세조와 정희왕후 윤씨의 능이다. 사적 197호.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산 99-2 소재, 면적 31만5124평. 세조의 유언대로 석곽을 쓰지 않고 조선 최초로 회곽(관과 광중 사이를 석회로 다지는 회곽으로 석실과 석곽을 대신하는 양식)을 썼다. 왕과 왕비의 두 무덤에 정자각 하나를 만든 '동원이강릉'으로도 최초다. 홍살문에서 정자각에 이르는 참도가 없다. 명확한 기록이나 증거는 없으나 유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광릉의 원찰인 봉선사의 대종



“내가 죽으면 속히 썩어야 하니 석실과 석곽을 사용하지 말 것이며, 병풍석을 쓰지 말라.” 세조의 유언(遺命)이다. 세조는 1468년 9월 7일 병세가 악화되어 왕세자(예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 이튿날 수강궁에서 52세로 승하했다.

역사의 영욕과 파노라마, 그 기승전결을 온몸으로 보여 준 이가 세조다. 권력의 임태와 성장, 소멸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준 이가 세조다. 영광과 비난을 한몸에 들뜬 받으며 지금 ‘빛나는 무덤(光陵)’에 누워 있다. 그의 유언은 영욕의 생애를 압축한 묘비명 같다.

광릉은 조선시대 440여 년 동안 풀 한 포기 채취도 금지될 정도로 보호되어 산림이 울창하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회귀조 크낙새가 이곳에서 서식한다. 능역 내 약 100정보에 150종의 활엽수림, 수령 수 백 년의 소나무가 장관을 이룬다. 이곳의 지명이 ‘광릉내’로 불리는 것은 광릉이 있기 때문이다. 세조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울울창창 속에 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형제, 조카를 무자비하게 살육한 권력의 화신, 치솟는 신권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한 제왕, 권내에 사찰을 두고 스님을 공으로 초대해 설법을 들은 호불의 군주, 왕자 시절 불경 이해 작업에 직접 참여한 학자풍의 군왕. 하나의 잣대로 규정할 수 없는 위인이 세조다.

세조는 불후의 성군인 세종의 18남 4녀 중 둘째 아들이다. 형이 문종(5대), 조카가 단종(6대)이다. 대군 시절의 이름도 다양하다. 처음에는 진평대군이었는데 세종 15년(1433) 함평대군으로 고쳤다가 진양대군으로 다시 고쳤으며, 세종 27년(1445)에 수양대군으로 바꾸었다. 이름이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암시한다.

세조의 등극은 우연보다는 필연에 가깝다. 용상으로 가는 설계를 쥐고, 길이 없으면 만들어 굴뚝이 있으면 헤치고 갔다. 역사는 승자의 몫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이기며 만들어가는 것이 역사이기도 하다. 세조에 항거해 목을 던진 사육신도 애초부터 저 항 세력이었던 것은 아니다.

12세의 어린 나이로 단종이 즉위하자 조정은 고명대신에 의해 장악된다. 권력이 신하들의 수중으로 넘어간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충서가 조정을 좌지우지한다. 태종이 왕비 집안을 몰살하면서까지 다져놓은 왕권이 곤두박질친다. 고명대신들은 황포정사(黃票政事)라는 것을 행한다. 의정부에서 대신에 임명할 인물의 3배수를 올리되 자신들이 의중에 둔 인물의 이름 아래 노란 점을 찍어 놓으면 단종은 결재만 하는 식의 정치다. 김충서, 황보인 등 핵심 고명대신들의 아들과 측근이 대거 등용되었고 아들들은 초고승 승진을 한다. 한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왕은 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백관은 의정부는 알았으나 군주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지 오래됐다’고 했다.

재상 중심 체제를 주장하던 성삼문 등 집권한 학자들도 김충서의 지나친 전횡을 비판했다. 할아버지 태종 때 유언기를 보내고 아버지 세종 때 청소년, 청년기를 보낸 30대 중반의 수양대군은 피가 끓는다.



광릉에 들어오는 울창한 숲길. 홍살문에서 정자각에 이르는 참도가 없다.

어떻게 일군 왕조인데, 칼과 피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운 왕조의 몰락을 보고만 있을 위인이 아니다. 1453년(단종 2년) 10월 10일, 역사의 불교가 바뀐다. 이른바 계유정난이다. 현대사에도 역사의 가닥이 휘둘러질 때가 10월이었지(10.26 사건). 수양대군의

서를 찾아가 첩보로 살해한다. 영의정 황보인, 병조 판서 조극관, 이조판서 민신, 우찬성 이양 등을 어명을 방지하여 차례로 대궐로 불러들여 참살한다. 한 국전쟁 때 폭파된 한강 다리도 떨어지는 목숨들처럼 차곡차곡 죽어갔다. 피비린내 지옥판 밤이 가고 시

광릉, 조선시대 440여 년 동안 엄격히 보호 산림 울창 대군 이름 4번 바뀌...신미·수미 대사 등 고승과 친교 호불은 ‘善’, 배불은 ‘惡’ 배불정책 외면한 ‘대호불왕’

로드맵은 치밀했다. 그해 초 수양대군은 자청해서 명나라에 간다. 단종의 즉위를 인정한다는 명나라 황제의 뜻에 감사하다는 사은사로 간 것이다. 권력 투쟁의 불길에 활활 타오르는 시점이다. 수하들이 만류했지만 덤덤하게 명으로 떠났다. 고명대신들을 안심시키려는 고도 전략이다. 전략은 적중했다. 명에서 돌아온 4월에 신속주를 막하에 끌어들이고 홍달손, 양정 등 잡잡이들을 양성했다. 6개월 뒤, 10월 10일 밤, 거사는 전광석화 같이 실행된다. 수양대군은 부하 유수, 양정, 어윤공 등을 대등하고 김종

린 가을 아침, 세상이 바뀐다. 5.16, 12.12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바뀌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 없는 모양이다. 하룻밤이면 충분하다. 첫째 동생 안평대군을 봉당 모의의 주역으로 지목해 강화도에 유배시켰다가 사사했다. 넷째 동생 금성대군도 유배 후 사사, 단종을 상왕으로 밀어낸 후 다시 노산군으로, 그리고 서인으로 전락시켜 죽였다. 그의 손에 들린 피가 너무 많다. 어떻게 입장을 녹인다. 역사는 그것을 ‘세조의 왕위 찬탈’이라 부른다. 즉위 기간 내내 죄책감에 시달린다. 아시는 이리까지 전

한다. 단종의 어머니이자 현수인 현덕왕후(문종 비) 권씨의 혼백에 시달려 만아들의 경계사가 20세로 요절한다. 병상에 있을 때 21명의 스님이 경회부에서 공작재를 베풀었지만, 그는 끝내 죽는다. 분노한 세조는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쳐 관을 파내 바닷가에 버린다. 또한 현덕왕후가 자신에게 침을 뱉는 꿈을 꾸 후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 고생한다. 피부병을 고치려고 오대산 상원사를 찾았다가 문수동자를 만나 쾌유한다. 그 장면은 다음 호에서 살펴보자.

정통성이 없는 정권은 괴롭다. 국제적 인정과 국내 민심을 얻는데 눈물겨운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정통성 있는 정권은 자칫 오만해지기 쉽다. 같은 노력이 없으면 오십보백보다. 세조는 문자가 아닌 강권으로, 인제 등용은 실력 중심이 아닌 측근 중심이었다. 비서 실(승정원) 중심의 철저한 측근정치를 펼쳤다. 조선 왕조 최고의 대호불왕(大護佛王)은 세조다. 대군 시절부터 신미대사, 수미대사 등 고승과 친교가 두터웠다. 즉위하자 바로 배불정책을 외면했다. 호불은 선, 배불은 악이란 단순 등식에서 벗어나 세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땅안이 누워 있는 그를 광릉 숲 한적한 곳으로 모셔와 담소를 나눠볼까.

글=이우상(소설가/asdfs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佛心 좋은 인연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성불화 만트라

어려운 일도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는 일 마다 꼬이고 안되는 사람이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잘못 들어 놓은 발로 공공거리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비롯하여 도박, 교통사고, 실직 사고 등 마음은 안하고 안가야지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끌려 들어간다. 어두운 밤 길도 알고 가면 쉽고 모르고 가면 화를 당하듯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좋은 인연, 좋은 길로만 인도

산행, 개주얼, 운동화, 조깅화, 여행용으로도 최고...

만트라 ㉔ 옴니 반매출은 뜻으로 진언비밀이라고도 하며, 원어를 음(音譯)하여 이를 많이 외우면 재력이 몰려가고 공덕이 쌓인다고 한다.

만트라 ㉔ 옴니 반매출 성불화는!

- 옴니와 이치를 받쳐주는 편안함
- 신고 벗기 편리한 원터치 신발끈
- 미끄러지지 않는 눈송림 밑창
- 힘이 잘 차지 않는 뛰어난 통풍성
- 몸무게를 분산시켜 주는 신발내부구조
- 가볍고 폭신한 착용감

성불화 보금처 080-775-7575
서울 742-9816 부산 853-4616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라꾸라꾸 침대

접이식 라꾸라꾸 온열침대

국내 접이식침대의 대명사 라꾸라꾸에서는 2007년형 모델을 출시하고 할인판매에 돌입했다. 라꾸라꾸는 접이식 침대의 최대장점인 이동성과 공간활용성과 경제적인편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침대란 오랜시간 사용하고 편안한 수면을 취하는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중요한 가구이기 때문에 편안함과 안락함이 선행되어야 하고 얼마나 수면건강에 도움이 되며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였는 가 하는 점과 공간활용에 필요한 기능성과 이동성을 중시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제품은 매트와 재질을 항균, 방취처리를 하여 매우 위생적이어서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판매가격은 온열기능이 내장된 1인용 싱글은 189,000원 2인용은 218,000원이며 일반형은 1인용 138,000원 2인용은 158,000원에 특별할인판매 하고 있다.

정품

원리방열은 7가지 5단계 조절가능

새워진온열커버

적온방, 환풍, 오버스틸, 학생용, 하체열, 양발, 한랭, 평면, 야외, 용이로 최고급이다.

▶인용 : 83cm×198cm×31cm
▶2인용 : 123cm×198cm×31cm

구입문의 : 080-788-7878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모기, 깔다구 퇴치램프!

여름이면 모기, 깔다구, 야행성 날벌레로 고생하는 사람이 수 없이 많다. 가려움증도 살이 짓무르거나 하면 모기, 깔다구로 야외 영업장에서는 손님받기도 힘들다. 야외나 실내에서 모기약을 치거나 환을 피우면 건강에도 나쁜고 아이들이나 알레르기, 호흡기가 안 좋은 사람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한중 합작으로 에다라이트에서 모기, 깔다구, 날벌레를 퇴치하는 전구를 개발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모기, 전구만 바뀌기우면 간단히 해결

다. 실내 또는 야외활동이나 야외영업장에서 간단히 전구만 바뀌기우면 절전은 물론 반경 4~5m에는 야간해충이 얼씬도 않는다. 이는 태양광을 이용한 원리로 야간해충이 극도로 싫어하는 가시광선의 파장 때문이다. 식당, 가든, 펜션, 전원주택, 야외레스토랑 포장마차, 우사, 축사 등 어디에서나 사용가능하며 모기에도 좋아 야간 조명등으로도 효과적이다. 가격은 25W는 22,000원, 55W는 48,000원 (택배비 별도)

●사용장소 : 사찰, 식당, 가든, 펜션, 전원주택, 야외레스토랑, 포장마차, 우사, 축사, 연안, 가실, 야이방, 놀이방, 도서관, 공원 등

[모기스탐 퇴치범위]

구입문의 080-307-3070
농협 1285-02-011378 이현실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잠옷! 「천하무적」 옷가네 토종참옷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임상완료

옷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옷 인더는 원로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옷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산고 정은이의 좋은아침 - 옷 밑 격정 없는 원로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옷 신문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옷 인더는 참옷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옷 부직물 격망! 난 맥!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직물 없는 옷, 서울대 임상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참옷의 약이 되는 옷 건강법
- ▶2006.8 20 KBS 상심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옷 참옷
- ▶2006.10.31 KBS 무한지대 - 참옷

『구입법 꼭 확인을...』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인종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난 많은 고령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옷가네 참옷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

●내용량 : 1박스(80매 × 60포) 2개월분
●1병(1.5L)